광주시장 수행비서 비위혐의 생명농업과 등 4곳 압수수색

지역행사 대행업체 금품수수 혐의 민선7기 들어 압수수색만 6번째 경찰, 금품 대가성 규명에 총력전

광주시가 7일 시장 측근 비위 혐의로 또다시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민선 7기 들어 6번째라는 점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의 이미지 타격과 함께, 대시민 행정 불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서부경찰은 이 시장 전·현직 수행비서 A·B씨의 시 주관 축제 이권에 부당 개입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광주시청 생명농업과 등 4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역행사 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B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며 비서진에게 시 주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적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 금품을 건넨 업체 대표 등 2명도 입건했다.

경찰은 A·B씨가 관계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이 대가성이 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수사의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경찰 수사 대상이 이 시장 측근인데다, 민선 7기 들어 시에 대한 압수수색이 6번째라는 점에서 이 시장이 정치적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시장 취임이후 지난 2019년부터 이번까지 3년여 걸쳐 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 9월5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과 관련해 행정부시장실과 공원녹지과 등에 대해, 같은해 11월19일 시장 최측근인 정무특보 사무실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의혹과 관련해 3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어 지난 2020년 1월17일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수사중 불거진 불법당원 모집 혐의에 대해 행정부시장과 광주도시공사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와 관련 정종제 전 부시장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이 퇴직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지난 4월8일 시청과 구청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그렇지 않아도 청렴도 최하위인 광주시가 비서실 직원들의 비위 혐의까지 불거지면서 공정과 청렴을 강조해 오던 이 시장의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청 직원들도 잇따른 청사 압수수색에 대해 망연자실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광주시청 A직원은 "민간특례사업과 불법당원모집,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된 압수수색과 달리 이번에는 시장 정무 인사에 대한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라는 점에서 불통이 어디까지 튈지 모르겠다"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소극적이고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용섭 시장은 처음 이번 사건이 언론에 불거지자, 지난 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 최근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운전기사와 현 수행비서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고발이 있어 경찰이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라면서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접하게 됐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바 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여수시가 2021 세계환경의 날 기념 바다모니터링 및 해양쓰레기 청결활동을 했다.

여수시, 해양·해안 쓰레기 5톤 수거

환경의날 맞아 청결활동 진행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이하 공발협)가 2021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여수국가산단 주변 해양쓰레기 청결활동과 수중모니터링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여수국가산단 묘도선착장 일대에서 한영대학교 석유화학공정과 학생과 해양환경인명구조단 여수구조대, 여수시자원봉사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 GS칼텍스 직원 등 80여 명이 참여했다.

해양쓰레기(폐타이어, 폐고철, 폐스티로폼, 폐어구) 2톤과 해안가에 방치된 각종 생활쓰레기 3톤을 수거했으며, 한국해양구조단 여수구조대 박근호 대장과 대원들은 수중모니터링을 실시해 해양생태환경을 파악했다.

공발협 김신 사무국장은 매년 민관산학이 공동으로 꾸준히 해양쓰레기 청결 활동과 수중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이를 통해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환경을 지키는 일에 모든 시민들이 동참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주최했다고 말했다.

매년 6월 5일은 국제사회가 지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다.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공동 노력을 다짐하며 제정한 날이고, 우리나라도 1996년부터 6월 5일을 법정기념일인 '환경의 날'로 제정했으며, 1997년 서울에서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여수(전남)=김용확 기자 jijacecom@

보성군, 취약가구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

보성군 득량면희망드림협의체 '득량바라기 100호 프로젝트' 시작

보성군 득량면희망드림협의체(공동위원장 김종남,최성복)가 취약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 '살고 싶은 득량, 득량바라기 100호'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득량면희망드림협의체는 이 사업을 위하여 집수리가 필요하지만 공공자원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취약가구의 노후주택을 전수 조사했으며, 대상 가구에 민간자원을 연계,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지난 4일 협의체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고령의 노인세대를 '득량바라기 1호'로 선정하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1호의 주인공은 진천마을 거주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붕누수로 인해 도배가 벗겨지고 천정과 흙벽이 드러나는 취약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보성군 득량면이 득량바라기 1000호 프로젝트 시작했다.

집수리비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400만 원을 지원받아 지붕 수리, 내부 천정 및 벽면 수리를 하였으며, 희망드림협의체 및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에서는 도배비와 재능봉사로 일손을 보탰다.

또한, 협의체에서는 집들이 생필품 전달과 함께 '살고 싶은 득량, 득량바라기 1호' 문패(표찰)를 부착하여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과 함께했다.

/보성(전남)=문쌍환 기자 m8527188@

울진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 합동훈련

현장대응능력 강화 일환 10일 실시

울진해양경찰서는 오는 10일, 14시경 후포항 인근 해상에서 동해지방해경청, 울진해경, 울진군 등 방제세력을 구성하여 해양오염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해양오염방제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훈련은 포항항에서 후포항으로 입항 중이던 유조선과 후포항에서 출항하던 화물선이 충돌하여 유조선의 화물탱크 파공으로 인한 기름 유출(10㎘ 이상)을 가상한 훈련으로, 인원 50여명, 선박 7척, 파공부 봉쇄 장비, 유회수기, 유류이적 장비, 오일펜스(300m) 등을 동원하여 ▲파공부 봉쇄 ▲유류이적 ▲오일펜스 설치(유출유 확산 방지) ▲유회수기 운용(해상 유출유 회수) 등으로 실제 해양오염 사고 시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방제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울진해경은 이번 훈련에서 방제기술 컨설팅 위원을 초빙하여 방제기술 역량 강화 및 해양작업 안전 관리 기술을 전수받아 내실 있는 방제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울진해경 관계자는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전반적인 현장대응능력을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개선함으로써 방제대응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울진(경북)=김귀열 기자 gold6830112@

경북교육청, 초중고 졸업 검정고시 시행

14~18일 교육청 등서 현장접수

경북교육청은 오는 8일 2021년도 제2회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오는 14~18일까지 5일간 도교육청, 포항·안동·구미교육지원청에서 현장 접수를 하며, 나이스 검정고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접수는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며, 외국학력 인정자의 경우 현장접수가 원칙이나 자가격리자 및 발열 등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등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때 원본 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 18일 등기 발송분에 한해 접수로 인정되니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시험일은 오는 8월 11일이며 일반인은 양덕중학교(포항), 인동중학교(구미), 안동중학교(안동) 재소자는 안동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총 5개 시험장에서 치러질 예정이며, 합격자는 8월 30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경북=김귀열 기자

영양군, 음식디미방 전수교실 운영

영양군은 2021년도 4월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조리서 '음식디미방'에 기록되어 있는 조선시대 요리에 관심이 많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음식디미방 전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음식디미방 전수교실은 2020년부터 1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지역민들의 참여로 지역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음식디미방 전수자를 육성하여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20여명의 지역민들이 전수교실 강의를 수강중이다.

전수교실 프로그램은 재령이씨 13대 종부(조귀분)로부터 전통음식 이론강의, 소부상 및 정부인상 상차림, 전통주 만들기 등을 배우며, 외부강사를 초빙해 음식 플레이팅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며, 총 22개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통한식 우수업체를 견학하는 일정으로 마무리 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음식디미방 전수교실을 통해 음식디미방 전수자를 확보하고 육성하여 영양의 대표적인 문화체험교육원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전통문화 자산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